

광주FC 벌교 전지훈련... 뜨거운 주전 경쟁

훈련 목표는 '육석 가리기'

목포시청 등 연습경기 7차례 준비

2월 중순 개막 맞춰 집중 훈련

광주FC의 2022시즌 준비가 본격화된다.

창원에서 1차 전지훈련을 소화했던 광주가 장소를 바꿔 본격적으로 주전 경쟁에 나선다. 치열한 경쟁의 무대는 벌교다.

17일 벌교로 떠난 광주는 29일까지 2차 동계 훈련을 하면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게 된다.

앞서 광주는 3일부터 15일까지 창원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했다.

새로 광주 사령탑에 오른 이정호 감독은 기초 체력·근력 강화 그리고 '소통'에 방점을 두고 1차 훈련을 지휘했다.

지난해 강등의 아픔을 겪은 만큼 선수단의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다지면서 팀을 하나로 묶는 데 주력했다.

2차 벌교 훈련의 목표는 '육석 가리기'다.

1차 훈련을 떠날 때보다 선수단 규모가 커졌다.

앞서 트레이드와 계약 종료 등으로 윤보상, 윤평국, 김주공 등이 팀을 떠났지만 광주는 1차 훈련을 진행하면서 속속 전력을 보강했다.

서울이랜드에서 활약한 공격수 문상훈과 이건희 그리고 골키퍼 김경민이 가세했고, 포항스틸러스에서 골키퍼 이준과 공격수 하승운을 영입했다.

대구FC에서는 미드필더 박한민·수비수 이상기를 불러들였다. 베테랑 수비수 안영규가 3년 만에 광주로 복귀하기도 했다.

올 시즌 팀에 잔류한 외국인 선수 헤이스도 자가격리를 끝내고 창원 훈련 중간 합류해 두 번째 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프로 데뷔를 기다리는 '새 얼굴'도 있다.

유스 출신의 '동갑내기 듀오' 김진영(FW·선문대)과 정호연(MF·단국대)도 광주 유니폼을 입고 창원에서 프로 첫 훈련을 소화했다.

창원에서 워밍업을 끝낸 광주는 벌교에서 뜨거운 주전 경쟁을 펼치게 된다.



창원에서 1차 동계훈련을 소화한 광주FC가 17일 벌교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창원 훈련에서 공을 드리블 하는 장동찬. <광주FC 제공>

7차례 연습경기도 준비됐다. 목포시청과 광주대·연세대 등 K리그 3, 대학팀과의 연습경기 일정이 잡혀있고 K리그 1 팀과의 연습경기 도 추진하고 있다.

올 시즌 K리그는 11월 월드컵 일정으로 예년보다 이른 개막을 앞두고 있다.

2월 중순 본 무대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광주 마음도 급하다. 새 사령탑을 필두로 새로 구성된 선수들과의 호흡 맞추기는 물론 주전 경쟁까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벌교 캠프는 실제 없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벌교로 가는 선수단 버스에 이번에도 엄원상은 탑승하지 못

했다. 엄원상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과의 2021 시즌 최종전에서 왼팔 골절 부상을 당했고, 아직 깃스를 풀지 못했다.

또 다른 광주의 미래 엄지성과 허윤은 태극마크를 달고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엄지성은 '벤투호'에 처음 이름을 올리면서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와 데뷔골을 장식했고, 21일 몰도바전을 기다리고 있다.

'장신 공격수' 허윤은 U-23 대표팀 국내 소집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9일까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제주에서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발리볼월드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연합뉴스

"라스트댄스 좋아 행복"

김연경, 국제배구연맹 선정

2021년 세계 최고 여자선수

"나의 라스트댄스 마무리가 좋아 행복하다"며 '배구 여제' 김연경이 최고의 2021 베스트 플레이어 여자선수 1위에 오른 소감을 밝혔다.

국제배구연맹(FIVB) 제휴 매체인 발리볼월드닷컴은 지난 16일 지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여자 배구 선수로 김연경을 뽑았다.

발리볼월드닷컴은 지난 10일부터 국제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뽐낸 전 세계 남녀 선수 12명의 순위를 공개했다. 그리고 여자선수 1위로 김연경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2021년은 김연경에게 획기적인 해였다. 지난해 김연경은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을 3회 연속 올림픽 본선으로 이끌며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4강에 올라두고 17년간 된 한국 대표팀에서 은퇴했다"고 평가했다. 또 "2021년은 김연경 유튜브 구독자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명 이상을 찍은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을 '라스트 댄스' 무대로 삼은 김연경은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선수단을 하나로 묶고, 올림픽 4강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권순우(54위·당진시청)가 출거 루네(99위·덴마크)를 제압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전5기' 권순우, 호주오픈 테니스 첫 승

신예 출거 루네 3-2 꺾어

출전 5년만에 2회전 진출

권순우(54위·당진시청)가 상대 선수의 부상에 힘입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 달러·약 644억원)에서 생애 첫 승리를 거뒀다.

권순우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폴셋트 접전 끝에 출거 루네(99위·덴마크)에게 3-2(3-6 6-4 3-6 6-3 6-2)로 이겼다.

이로써 권순우는 호주오픈 본선 첫 승리 사냥에 성공했다. 권순우는 앞서 2018년과 2020년, 2021년 세 차례 이 대회 본선에 나서 모두 1회전 탈락했다. 2019년에는 예선에서 탈락했다. 5년간 4전 5기 도전을 펼친 셈이다.

권순우가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2회전에 오른 것은 2020년 US오픈(2회전 탈락), 지난해

프랑스 오픈(3회전 탈락), 윌빙던(2회전 탈락)에 이어 4번째다.

권순우는 라슬로 제레(51위·세르비아)를 3-1로 꺾고 올라온 테니스 사포발로프(14위·캐나다)와 19일 2회전(64강)을 치른다.

23세인 사포발로프는 지난해 출전한 메이저 3개 대회 중 호주오픈과 US오픈에서는 3회전까지, 윌빙던에서는 4강까지 오른 것이다.

권순우는 사포발로프를 상대로 1전 1패를 기록 중이다. 2020년 US오픈 2회전에서 맞붙어 1-3으로 졌다.

권순우는 이날 1세트 자신의 첫 서브 게임에서 한 포인트도 따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5번째 서브 게임도 브레이크 당해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 권순우는 루네의 두 번째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해내며 흐름을 뒤집었다. 3번째 서브 게임은 내줬지만, 곧바로 다음 루네의 서브 게임을 가져오며

기세를 유지했고, 결국 세트 점수 1-1을 만들었다.

하지만 승부의 흐름은 3세트에 다시 바뀌었다.

루네가 힘의 우위를 이어간 가운데 이전까지 권순우가 우세하던 넷 플레이에서도 더 많은 성공률을 보이며 세트를 가져갔다.

권순우는 4세트 첫 서브 게임을 루네에게 내줘 패색이 짙어졌으나, 이때 행운이 찾아왔다. 루네가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7번째 게임에 들어서 권순우의 서브를 받아치지도 못했다.

권순우는 결국 4세트를 가져오며 승부를 마지막 세트로 몰아갔다.

권순우는 통증에 계속 흔들린 루네의 세 번째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승리를 예고했다.

흐름을 이어간 권순우는 3시간 5분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18일에는 여자 단식에서 장수정(210위·대구시청)이 권순우로부터 '승리 기운'을 이어받아 메이저 대회 첫 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V리그 올스타전...23일 광주 개최



오는 23일 2021-2022 V리그 올스타전이 열리는 광주 시페퍼스타디움.

3년 만에 열리는 빅 이벤트

서브 콘테스트 등 마련

1976년 몬트리올 스타와 만남

한국프로배구 V리그가 3년 만에 올스타전을 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7일 2021-2022 V리그 올스타전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올스타전은 23일 여자부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홈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다.

V리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2019-2020, 2020-2021시즌에는 올스타전을 열지 않았다. 가장 최근 열린 V리그 올스타전은 2019년 1월 20일에 치른 2018-2019시즌 대전 경기다.

KOVO는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올스타전은 참가하는 팬과 선수 모두가 올스타라는 의미를 담아 'WE, ALL★STARS'의 슬로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스타 선수들은 팬들의 바람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날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팬들이 붙여준 '별명'을 유니폼에 달고 댄다.

한국에 '댄싱 열풍'을 몰고 온 '홀리뱅'은 올스타전을 찾은 팬들을 위해 축하 공연을 한다.

올스타전은 세트당 15점씩 총 3세트로 펼쳐진다.

1세트는 여자부, 3세트는 남자부로 팀을 구성하고, 2세트에서는 남녀 혼성 경기가 열린다.

'스파이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도 팬들이 기다리는 빅 이벤트다.

여자부에서는 모마(GS칼텍스), 정윤주(흥국생명), 김희진,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이소영(KGC인삼공사), 황민경(현대건설), 이한비(페퍼저축은행)가 출전해 2013-2014시즌 카리나(IBK기업은행)가 달성한 시속 100km 기록에 도전한다.

남자부 서브 콘테스트 최고 기록은 2016-2017시즌 문성민(현대캐피탈)이 세운 시속 123km다.

임동혁(대한항공), 나경복(우리카드), 조재성(OK금융그룹), 케이타(KB손해보험), 임성진(한국전력), 홍동선(현대캐피탈), 러셀(삼성화재)이 기록 경신을 노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